

남평 조씨 3년 9개월의 家政과 인간경영*

- 『병자일기』 중심으로 -

문희순(배재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1 남편 |
| 2. 호서지역으로의 피난과 귀환 | 4.2 친자녀 및 서자 |
| 3. 家政 | 4.3 며느리 |
| 3.1 제사설행 | 4.4 친족 및 빈객 |
| 3.2 선물수수 | 4.5 노비 |
| 3.3 농사운영 | 5. 맺음말 |
| 4. 인간경영 | |

1. 서론

『병자일기』는 춘성부원군 南以雄(1575-1648)의 부인 南平曹氏(1574-1645)가 1636년(병자) 12월 병자호란을 당하여 황급히 피난길에 오르기 시작하여, 이 후 서울 본 집으로 돌아와 정착하여 생활한 1640년(경진) 8월까지 3년 9개월의 나날을 기록한 일기이다.¹⁾ 『병자일기』의 시작은 남한산성에 머물고 있는 남편 남이웅으로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5-075-A00077).

1) 정확히 1636년 12월 15일부터 1640년 8월 9일까지이다. 남평 조씨의 기록정신으로 유추해 본다면, 이 뒤로 운명하기 전까지의 일기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崇禎丙子日記』의 표제로 묶여진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부터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짐붙이는 생각도 말고 낮밤을 가리지 말로 빨리 청풍으로 가라”²⁾는 화급한 편지를 받고, 양식을 담은 쌀 껌 하나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가지고 온 상자도 물어아히는 긴박한 상황으로 기술되어 있다.³⁾ 이 후 전쟁을 피하여 이 곳 저 곳 피난처를 바꾸며 겪는 노년기 양반 여성의 고난의 여정이 섬세한 정감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심리적 기저에는 남편 남이웅이 세자를 시종하여 1년 반 동안 심양에 볼모로 끌려가게 됨으로써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무사귀환에 대한 불안감과, 슬하의 4남 1녀를 모두 잃어 자식에 대한 애끓는 모정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평 조씨는 대대로 벼슬살이를 한 시족집안의 자녀로 태어나 혼인하여 순탄한 삶을 구가해 왔을 터이지만, 국가의 위란과 남편과의 분리, 자녀의 죽음을 직면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하루하루의 삶의 단상을 이 일기에 오롯이 담아내었다. 남편이 귀환하기까지 망국의 한과 피난 여정은 그야말로 숨이 막혀 정신이 아득한 상태였고,⁵⁾ 피난처를 어디로 정하여야할지 아득 하기만했⁶⁾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일기 도처에서는 ‘통곡통곡·망국망국·망국톡톡’이라 표현하였다. 주야로 산성을 바라보며 통곡하다 지쳐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남편이 심양에 볼모로 가 있을 때에는 밤마다 머나먼 적국의 땅에 있는 남편의 꿈을 꾸며 꿈에 대한 긍정적 해석으로 몸부림치기도 하였다.

2) 1636년 12월 16일. “이리 급히하시니 짐부터란 생각디마오 망뎡야하여 청풍으로 가라”

3) 1636년 12월 16일. “량식이 만히어시…다 두고 다만 쌀각 하나홀 가져오다가…상즈다 게 못고”

4) 1638년(무인)년 5월 18일 돌아왔다. (1638년 5월 21일. “오시는 하여 데쇠 드러오니 흥치 평안이 열 여드랜 날 드러오셔 숙비하시다 하니”)

5) •1637년 1월 17일. “뎡야의 산성을 바라 통곡호고져 먹음의 츠마 나룰 다내니 인성이 언메나흔고 구들손 인명이니 아디 못게라 …… 망국등의 나라 이리되신이를 부녀의 아를일이 아니로디 엇디아니 통곡々々히리오”

•1636년 12월 26일. “히는 진혀여가고 산성 기별은 아득하니 이 때 애근눈저기라 망국々々호고 정신은 간디 업스니 엇디 다 기록히리”

•1637년 1월 2일. “새히를 만나니 망국 툇々히기를 다 니르랴”

6) •1637년 1월 7,8일. “요스이 의논도 불일코 흥츠를 아므드러 덩티 못혀여 …… ”

•1637년 3월 9일. “충추로가려하니 …… ”

『병자일기』는 1989년 5월 충남향토연구회에서 간행 한 『향토연구』 5집에 김영한 선생에 의해 자료가 소개되고, 1991년 전형대·박경신 교수에 의해 『역주 병자일기』가 출판되면서 많은 연구 업적들이 나왔다. 문학⁷⁾, 민속⁸⁾, 여성 생활사⁹⁾, 국어사¹⁰⁾ 그리고 『역주 병자일기』의 주해상의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한 논문¹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병자일기』는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필요한 비중 있는 고전 텍스트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늘날 전통시대의 여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다소 왜곡되어 있는 면도 없지 않다. 17세기 남평 조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 연구에서 『병자일기』 독해는 가부장제에 동화된 피동적 여성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 없지 않다. 『병자일기』에서 만나는 남평 조씨의 삶과 문학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바라보아도 부족함이 없다. 정치하고 섬세한 여성정감의 문학적 필치, 난을 만나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담대함,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가족과 타인에 대한 이타적 인간경영의 모습, 빈틈없이 가산을 일구고 운영하는 生産者로서의 역할 등에서 남평 조씨의 창조적 인생경영 철학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남평 조씨의 가정 내 주체적 생산자로서의 삶의 모습과

7) 박경신, 「〈병자일기〉의 수필적 성격」, 『울산어문논집』 7, 1991.

박성순, 『병자호란 관련 서사문학에 나타난 전쟁과 그 의미』, 동국대 석사논문, 1996.

변순희, 『일기체 문학 〈병자일기〉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장경남, 『병자호란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여성 수난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1권 3호, 2003.

김경화, 『『병자일기』에 대한 여성문학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4.

함정옥, 『남평조씨 〈병자일기〉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6.

8) 박경신, 「『병자일기』에 나타난 1630년대 후반의 민속」, 『울산어문논집』 9, 울산대 국문과 1994.

9) 김신연, 「〈병자일기〉에 나타난 조선조 노부인의 생활상」, 『한양여전 논문집』 20, 1997.
이순구, 『조선후기 양반가 여성의 일상생활 일례 I -『丙子日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1998.

10) 김영춘,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국어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11) 민 찬, 「문헌자료 주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 『인문과학논문집』 44·45, 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2008.

실상을 ‘家政과 人間經營’의 시각으로 『병자일기』를 독해 하고자 한다.

2. 호서지역으로의 피난과 귀환

『병자일기』는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크게 避難·滯留期(1636년 12월~1638년 6월 1일)와 歸還·安定期(1638년 6월 2일~1640년 8월 9일)의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로써 본다면 피난 기간은 18개월이고, 서울로 귀환하여 생활한 기간은 27개월이 된다. 아래의 도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636년 12월부터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한 곳은 전북 여산이다. 여산은 형님 의주대¹²⁾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어서 서로 의지하여 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¹³⁾ 이 후 충주로 이동하여 서울 귀환 전 까지 체류하였는데, 충주로 이동한 주요 이유는 서울 가까이 가서 남편의 소식을 빨리 듣고 농사나 지을까함이였다.¹⁴⁾

피난 시기는 남평 조씨의 일생에서 가장 커다란 수난기였을 것이다. 이미 슬하의 1녀 4남을 다 잃은¹⁵⁾ 상태에서, 서해안 무인도 竹島에 도착하여 정월 달 눈보라 속에서 연장도 없이 대나무를 베어 가까스로 명매기 새 둥지처럼 두 간 집을 엮었다. 그 집 아닌 집에서 열 네 사람이 생 댕잇으로 바닥을 깔고 지붕을 이어 은신하였고, 종들은 대나무로 막을 만들어 지냈다. 남평 조씨 일행은 찬 밥 몇 순갈씩 나누어 먹으면서 물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서 눈을 굶어모아 녹여서 먹기도 하였다.

“통이과 어산이 대를 비고 연장이 업서 갓가스로 이 간 길의에 문 하나홀 내어
명막의 집 7티 움홀 무드니 싱대넛 쥘고 대넛호로 니여 세 덕니 형치 열 네히 그

12) 남이웅의 생가 큰 형 南以英의 부인.

13) 1637년 3월 9일. “녀산 가 의취덕 형님이 깨다 겨시다하니 보덕 기별 올 제 흥가지로 가 디내려”

14) 1638년 1월 26일. “길나다 녀산을 떠나니 7이업시 섭々고 대되 문즈와 밋일 쇼일헝다가 이리 떠나가몬 서울히나 갓가이 가서 기별이나 듣고 녀름지이나 흐려 움즈기나”

15) 1640년 1월11일. “나는 엇던 팔지 흥 쫄 네 아들 나 하 종격도 업서디건고”

안해 드러 새아고 종들은 대를 뷔여 막을허여 의지코 디내나 물 업스 무인되라
대수피 가 눈을 그려 노겨먹고……모든 낭반들 피란하니 거러의 물을 나가 기러오디
우리 헝츠는 거러도 업고 그릇도 업스니 흐 그릇 물도 어더 못머그나 ……(1637년
1월 17일)”

한편으로 적군의 침공으로 우왕좌왕하여 어디로 피난지를 정할지 의문이 통일이
되지 않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긴박한 상황도 발생하였다.¹⁶⁾ 남평 조씨는 피난지
에서의 궁핍과 남편과의 분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란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넋을 잃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¹⁷⁾ 가슴속에는 늘 불이 붙어 있다고 토로하였
다.¹⁸⁾ 일기의 여러 곳에서 “정신이 아득해서 다 기록할 수 없다”는 표현을 자주
하였다.

피난하여 체류한 지역은 호서 지역 전역을 거치다 시피 하였다. 주로 친지와
노비 등이 거주하여 연고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일기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이동경로는 아래의 <표 1> 【피난지 이동경로】와 같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피난·체류지역은 모두 호서 지역으로 남하하여 가장 남쪽으로는 여산까
지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 근처로 북상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호서 지역의 지명을
공간적 이동에 따라 거론해 보면, 신창·긴마루(당진)·당진·서산·홍성·죽도
(보령)·대흥(예산)·청양·여산(익산)·유성·청안(괴산)·충주·이안·월탄
등이다. 이 외에도 경유 또는 전담의 소재와 인물이 오고 간 정황으로 거론된
호서지역 지명도 ‘소허섬·계성(닭жат골)·바리오디·농틀·덕산·니산(노성)·
공주·딘즘(진잠)·청쥬(청주)·년산(연산)·회덕·시화·목계·님천(임천)·
금산·홍산·한산·청풍(청풍) 등이다. 이 가운데는 현재 알 수 없는 호서지역
지명도 많이 있다. 남평 조씨의 지역적 네트워크가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음에
도 호서지역을 피난지로 선택하여 체류하였고 일기의 많은 내용이 호서지역에서

16) 1637년 1월 13일. “도적이 네산드다 소동으로 세 덕니 헝츠는 셔산으로가고 진스는
계성으로 가 밀산근덕 비 곳 어드면 섬으로 들고 비 곳 못어드면 흥풍로셔 녀산으로
나가고져허나 도적이 아므드려 헤여딜줄 모르고 큰 길의 나가기를 결단 못허여더니”

17) 1637년 3월 25일. “이 난을 생각하니 7이업서 울고 안차더니”

18) 1637년 3월 17일. “홍중 회포는 불이 미양 브트니 엇디 이러아니 흐리오”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병자일기』는 지역문학적 함의가 큰 작품이다.¹⁹⁾

환도·안정기는 피난·체류기와는 물리적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 여전히 불완전한 시대이기는 하나 이 시기의 일기는 주로 남편의 안정적인 관직 생활기와 빈객집대·선물수수·농사운영·노년기의 질병, 변함없는 제사실행 등의 내용이 일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병자호란이라는 자장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남편의 벼슬살이가 심양에서 귀환한 이후 승진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노부인의 걱정은 끊임 없이 없다. 그 걱정 중의 하나가 ‘置子’ 문제였다.

“나죄 티즈 간 일들로 비오게 녕감 병판 홍보 나옴헌신 기별오니 의금부의 가겨시다 밤등만 오시다 글언 놀라운 일 업고 티즈 디신 보내기로 이러니 두림이 가게되니 혼 아히로 이목궤티 잇다가 더리 보내는 정시 궤이업스니 이런 시절이네도 잇던가 겹々 혼 이리로다(1640년 3월 9일)”

“이 날 정스의 네조판서 하시니 티즈 갈 일로 궤이 업스니 별좌업슨 후는 슈족이 업시 인는 사름이되여 디내다가 천남이 즈란 후는 온갓 이리 이목궤티 잇다 더리 보내게 되니 이런 이리 업서호노라 낸들 쳇궤궤티 녀기며 젼들 덕피라호라 이리 늘고 병니에이셔 다시 보디 못홀가 궤이업서 호노라”²⁰⁾

置子는 병자호란의 여파로 조선의 3공6경 대신들의 적자를 심양에 불모로 억류시켜 두는 일을 말한다. 남이웅은 집안에 적자가 모두 사망하였기 때문에 서자가 대신 가야할 처지에 놓여 남평 조씨는 마음을 조려 노심초사하였다. 위

19) 현재 남평 조씨와 남이웅의 묘소는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소재하고 있다. 후손 남대현씨는 『병자일기』를 위시해서 선대부터 소장해 오던 남이웅가의 유물 67점을 국립공주박물관에 기탁하였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이 가운데 12점을 행복도시 제 1호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남이웅의 후손들이 공주로 입향하게 된 때는 1762년 전후 南必復(남이웅은 필복의 6대조)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역대로 한양에 세거하던 의령 남씨가 공주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남이웅 부부의 묘소가 공주 반포면에 있고 사패지가 있는 인연 등으로 인하여 후손들이 세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남대현씨의 진술). 남평 조씨와 남편의 유물이 피난지였던 호서지역에서 오롯하게 보관·전수되어 내려온 사실이 우연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20) 1644년 4월 26, 27일.

1640년 3월 9일 일기는 남이응의 4촌 배오개 영감 南以恭(1565-1640)과 병조판서 洪蠶(1585-1643)가 적자 대신에 서자나 열자를 대신 보낸 문제로 옥에 갇힌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네 명의 아들을 모두 잃은 남평 조씨는 이 置子 문제로 이목처럼 아꼈던 첩의 아들 斗臨이마저 멀리 적지에 보내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노심초사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즐거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도 가슴 속 응어리는 자식을 잃은 한으로 맺혀있었고²¹⁾ 이 문제는 말년으로 갈수록 삶과 죽음에 대한 허무적인 자세로 고질이 되어 한으로 자리 잡았다. 일기의 후반부에 갈수록 자주 “인간 세상은 하 거짓 일이니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많다”고 토로하였다. 화려한 듯하나 쓸쓸하고, 채워져 있는 듯하나 비워져있는 한 노부인의 심리 언저리를 아련하게 보는 듯하다.²²⁾

21) 1639년 10월 3일. “상시 즐거운 사람 ㄹ티 디내니 제 정녕이 나물 니즌가 생각흐는가 더욱 설위 흐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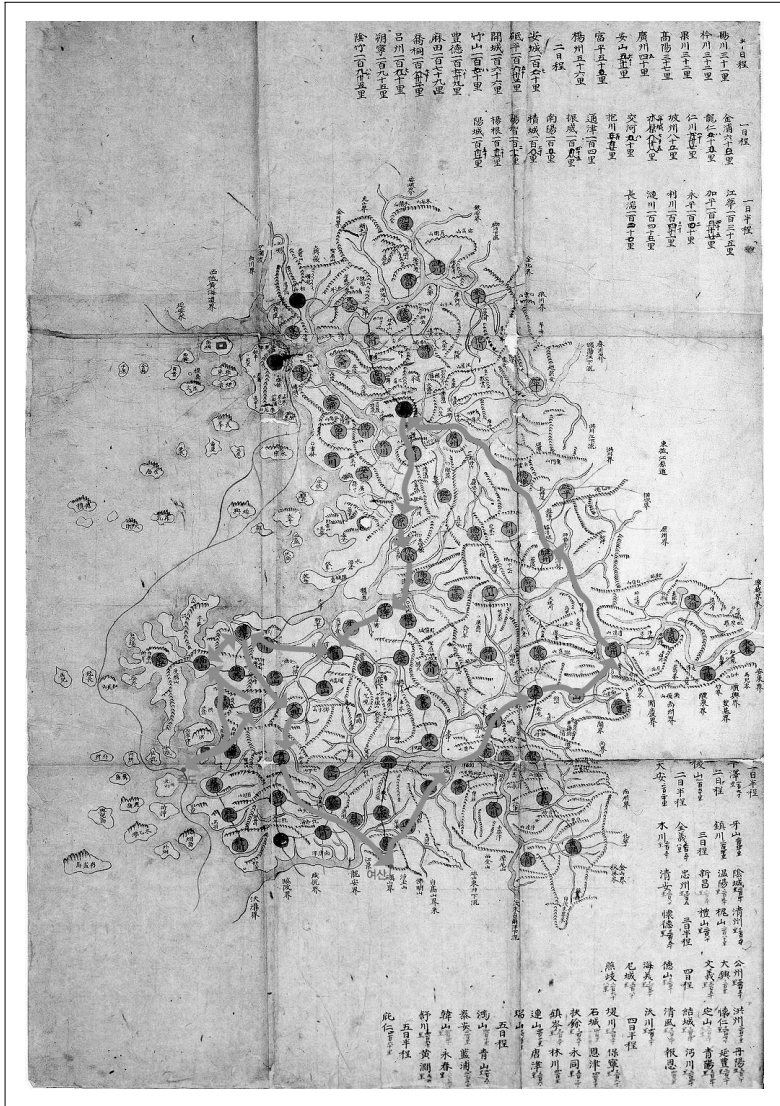
22) 1639년 3월 18일. “인식 하 거짓일이니 슬프미 ㄹ이 업고”

1639년 8월 1일. “인식 하 거짓거시니 인세에 언머롤 이시려 고로온이리 만흐니……”

〈표 1〉 【피난지 이동경로】

연도 (간지)	월	일	장소	숙소	비고
1636년 (병자)	12월	16일	고죽골(경기도 화성)		
		17일	진위(振威, 경기도)	감찰택(조카南斗華의 집)	조카의 집
		18일	평택(平澤, 경기도)	업동의 집	종의 집
		20~22일	신창(新昌, 충남)	한늘의 집	
		23일	긴마루(긴마루)		당진 대호지면 장지리
		24일	오목이(오목리)	유생원 댁	아산 신창면 모두 40여 명이 묵음
		25일	당진읍내	호장 박상의 집	
1637년 (정축)	1월	14일	서산(瑞山)	막산의 집	
		15일	홍취(홍성)경계	병사 유림의 農舍	柳琳은 남이홍의 사위
		16일	죽도(竹島)		보령시 남포면
	2월	19일	소허섬		
		20일	서산	막산의 집	종의 집
		22일		석회마을	
	3월	11일	신평(당진)		
		14일	대흥(예산)	대흥 읍내	
		15일	나발티너머		
		16일	청양		
	4월	17일	농틀	막난의 집	종의 집
		7일	둔갓골		
윤4월	10,11, 12,13, 14일			4간 집을 지어 지붕 을 올린다.	
1638년 (무인)	1월	26일	여산 출발		익산
		27일	유성 근처 하처		대전
		28일	청안 시화 역마을		괴산
		30일	충주 남면		
	2월	1일	충주	당남의 집	종의 집
		2일	명취 어머니 집		종의 집 (충주 이안)
	5월	29일	월탄 숙		남편귀국 후 서울행차 시작
	6월	1일	월탄 출발, 비애 ²³⁾ 숙		홍판사의 전송
2일		두못개 ²⁴⁾ 하선, 본가도착		서울본가 6년만의 귀가	

〈표 2〉 【피난·체류지 이동경로 지도】



- 23) 여주 금사면 이포리.
- 24) 豆毛浦. 서울 옥수동.

3. 家政

남평 조씨는 家政의 ‘主體的 生産者’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진 삶을 영위하였다. 『병자일기』 행간에서 읽혀지는 남평 조씨의 삶은, 전통시대 대부분의 여성의 삶이 가정내 ‘內助者’로서만 존재했을 것이라는 우리의 편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그간 전통시대 여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가부장제도나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피동적이고 나약한 여성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여성은 이름도 없이 살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인식이 더욱 공고화되었던 시기로 인식되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 조차도 가족 내 여성의 삶의 실상은 우리의 상상을 너머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물론 양반 여성에 국한된 일이지는 하나 글과 문집을 남긴 여성, 남편의 문집을 간행 한 여성, 남편과 시를 주고받아 부부시집을 남긴 여성, 자녀교육을 직접 실천한 여성, 治産을 통해 부를 형성한 여성 등 가문의 유지와 형성은 여성에 의해 좌지우지 될 정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이옹가의 가정 운영은 남평 조씨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 남이옹이 심양에 억류되었던 1년 반 여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환조이후에도 가정관리는 오롯이 남평 조씨의 몫이었다. 남평 조씨의 家政의 중심은 祭祀設行·膳物授受·農事運營이 포착 된다.²⁵⁾ 이 장에서는 제사설행·선물수수·농사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제사설행

남평 조씨는 죽은 사람의 영혼 곧 정령이 있다고 믿었다. 난리 통에 친지들이 무사했던 것은 모두 조상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기록이 도처에 기술되어 있다. 조상이나 죽은 자녀들의 생일 다례와 기제를 지내고, 그들의 꿈을 꾸며 늘 죽은 자들과 심리적 교감을 하고 있다. 특히 13세와 25세에 죽은 두 아들 斗亮·斗相,

25) 여가에 집을 보수하고, 장을 담고(1639년 4월 9일, “장 믈즈덤고”), 병풍을 만드는 일(1640년 5월 14일, “병풍 둘 오늘 믈자 밍그다”)등의 일도 하였다.

斗相의 두 아내 창골며느리와 여주며느리의 생일과 기일에는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한다. 피난기에도 제사는 철저히 행하였고 1년 반 여의 피난·체류기를 마치고 서울의 집으로 귀환하였을 때에도 신주를 모시고 집에 들어왔다.²⁶⁾

남평 조씨의 제사설행 범위는 媿家 쪽으로는 시부모, 양부모, 양조부모, 양증조부모, 외조부모, 양외조부모이고, 친정 쪽으로는 친정어머니와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지냈다. 친정 부모의 제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목된다.

- ① 1638년 1월 18일. “문밖모님 기제시더니 조별좌 오려타가 비로 묻은가 시브다 천남이를 드리고 삐스와 제를 다내오니 슬프옵고 설운 정이 7이업고 외손이나 이시면 아니 호오라 7이업서 호노라 죽하들도 하나도 묻오니 글언 섭々이 업다”
- ② 1639년 1월 18일. “어마님 기제 다내오니 새롭스이 슬프옵다 녁감 참계하시니 정녕이 죽히 든々 호오시라 내 7음도 7이업시 든々호옵다”
- ③ 1640년 1월 18일. “문밖모님 기제 다내오니 외손도 감찰이 두림이 드리고 제를 호오니 슬프오미 새롭스이 7이업고”
- ④ 1637년 9월 6일. “오늘이 내의 대기라 7이업스은 정만 생각호노라”
- ⑤ 1638년 9월 5·6일. “오늘이 내의 대기라 참제도 묻호오니 쫄조식7티 불용이 어떡이시리”
- ⑥ 1639년 9월 6일. “식후의 두못개 가 겨셔 샤직골 부모님 신주 피와 오시다 그 일가 신주 다 이리 오시니 대되 차례호옵다 신주 오시니 든々 반갑습다”

①②③의 ‘문밖모님’은 문밖어머니 곧 남평 조씨의 친정어머니이다. 제사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은 남평 조씨의 친정 쪽 가까운 친척으로 보이는 조별좌와 斗臨(천남)이다. 슬하의 자녀들이 살아있었더라면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 있었을 것이나, 측실의 자녀 곧 서자인 두림이가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②에서는 남이옹이 환국한 이후 친정어머니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든든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④⑤⑥의 ‘내의 대기’는 남평 조씨의 친정아버지의 기일을 가리킨다. ④와 ⑤에서는 친정아버지의 제사에 참여치 못하는 심정을 “딸자식같이 쓸모없는 것이 어디 있으리”라고 탄식하였다. 그러나 ⑥에서는 사직골 부모님의 신주를 위시해서 一家

26) 1638년 6월 2일. “갓가스로 비에 느려 신주 피옵고 지비 드러오니”

의 신주를 다 모시고 오니 든든하고 반갑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가의 신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다. 친정 부모님의 제사를 모실 친정 오라버니들이 모두 사망하여 여동생 주서댁(주서 金信行의 아내)과 남평 조씨 두 사람만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²⁷⁾ 남평 조씨가 친정 부모님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 外孫奉祀의 설행 형태이다.

輪回奉祀의 모습도 있다. 다음은 남평 조씨의 친시어머니 청주 한씨의 제사설행의 모습이다.

- ① 1637년 10월 22. “정랑댁 츠례라코 두하와 디내옵다”
- ② 1637년 12월 29일. “대기라 형님댁의셔 디내시고”
- ③ 1638년 12월 29일. “대기 디내옵”
- ④ 1639년 12월 29일. “대기라 출화가 디내옵다 녕감 두림 뵈와 가 디내옵다”
- ⑤ 1639년 12월 27일. “사직골 대기 제물 출혀 보내옵다 닛뎡골딕 츠례시나 우리게셔 하옵다”

남이웅의 친 형제는 以英(의주댁) · 以俊(닷젓골댁) · 以雄(남평 조씨) · 以傑(삼등댁) · 以敏(정랑댁)이 있다. ①은 시외조모 기제를 정랑댁 남이민의 집에서 지냈고, ②④는 시어머니 기제를 동서들의 집에서, ⑤는 닛젓골딕 곧 남이준의 집에서 모실 차례이나 남평 조씨가 제물을 차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내는 제사에, 형편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제사설행을 하고 있다. 아래의 도표는 1639년을 중심으로 월별 제사 설행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27) 1638년 1월 27일. “엇디 우리 형테나 오라바님 거실 적이나 느피업슨 동싱돌ㄹ디 디내다가 오라바님 두 분 업스시고 다만 우리 형테만이셔 각々경향의셔사니 ㄹ이々々업 시 설은 회포를 엇더타 흐리”

〈표 3〉 【월별 제사(다례)설행 내용】

월	일	생일다례	제사	절일차례	비고(참례자)
1월	13일		증조부(南世健)기제		
	18일		어머니기제(문밖어머니, 친정)		남이웅, 조감찰
	24일		대기(부 璋)		목집의(목성선), 남도사형제, 남참봉형제 합7인.
2월	9일		대기		
	19일		시사		
3월	3일			삼짇날 차례	
	21일		양외조부 기제사		
4월	5일		친계(斗亮)기일		13세 줄.
	18일		양조부(南延慶)기제		
5월	5일			단오차례* (28)	
	26일	창골머느리 (이씨, 斗相의 아내)			
6월	15			유두차례*	
	20일	생일(양모)다례			
	25일	양조모생일다례*			
7월	6일		양조모기제		
	19일		증조모기제		
	24일		조별좌택할머니 기제*		
	29일	여주머느리 (신씨, 斗相의 아내)			
8월	26일		창골머느리기제		
9월	6일		사직부모 신주모시고 차례		
	9일		시사	차례(사직부모)	
	25일		사직부모시제		
10월	3일		별좌(아들 南斗相)기제		1633(계유)줄
	5일	양조부(南延慶)생일다례			
	22일		외조모기제*		
11월	2일	사직어머니 생신다례			친남(서자)참제
	8일	별좌(아들 南斗)			

		相)생일차례			
	9일		여주며느리(신씨)기제		
	18일		시사		남이웅, 유생 원 참제
	28일			동지차례	
12월	1일		대기(양모)		유석창 참제
	27일		사직골 대기		
	29일		대기(시어머니, 청주한씨)		남이웅, 두립

이상의 도표에서 살펴 볼 때, 남편 조씨는 총 7번의 생일차례와, 22번의 기제(시제 포함), 5번의 절일차례를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달 평균 2.8의 횟수로 제사설행을 하고 있다. 이는 피난기와 귀환기 모두 정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남편 조씨의 家政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3.2 선물수수

『병자일기』에서 선물은 남이웅가의衣食住 가운데食과衣, 곧 ‘먹고 입는’ 문제를 총당할 수 있는 중요한 물적 근거가 되었다. 남편 조씨 집안은 손님치레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중앙 관료의 빈객 왕래의 실상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 일어서 추단하기는 어려우나 『병자일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피난기나 귀환기 모두 규모와 횟수 면에서 적지 않은 손님치레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문자 이름과 접대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한 특징이다. 피난기에는 주로 친인척이나, 노비, 관료로부터 물자를 지원 받은 것이 강하고, 귀환기에는 손님들이 집으로 찾아와 제공하는 양상을 많이 띤다. 남이웅가의 잦은 빈객왕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보인다. 첫째, 남이웅이 의정부 중앙부처의 요직관료로 서울에 거주한 점, 둘째, 부인 남편 조씨의 정성스러운 빈객 접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손님들은 당일 와서 술대접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 많게는 며칠씩 숙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전 손님, 오후 손님, 저녁 늦은 시각의 손님까지 하루에 몇 차례씩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28) *표는 다른 해에는 지냈지만, 1639년 일기 기록에 빠진 것을 의미함.

이렇게 많은 손님치례의 물자는 어떻게 다 충족하였을까? 실질적으로 남이옹의 월급 곧, 급료로는 충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병자일기』에서 월급에 해당하는 급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²⁹⁾ 남평 조씨의 기록정신에 의거하면 의도적으로 기록에 빠뜨릴 일은 희박해 보인다. 그리고 급료로 받아오는 물자의 양도 매우 적다. 祿俸은 명종 11년 직전법이 폐지된 이후 국가가 관료에게 지급하는 주된 생활보장책이었고, 祿은 四孟朔 곧 1월, 4월, 7월, 10월 초에 직에 따라 18科로 나누어 광흥청에서 지급하였고, 俸은 월별 이하로 지급되는 급여이다.³⁰⁾ 남이옹가의 녹봉은 이러한 제도적 규칙에서 벗어나는데, 『병자일기』에 기록이 누락되었는지 알 수 없다. 남이옹가의 많은 손님치례의 물적 근거가 ‘膳物授受와 農事運營’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표4는 3년 9개월간의 선물수수 내용이다.

〈표 4〉 【선물수수 목록】

연도 (간지)	월	일	선물 제공자	선물 수수 내용	비고(거주)
1636년 (병자)	12월	24일	유생원	음식, 술	이산 신창 오목리
		25일	호장 박상 십진사택	팔죽 한 동이, 술 저녁밥, 떡, 술	당진 읍내
		26일	십진사 별실	약주	십진사는 문안
1637년 (정축)	2월	25일	첫째, 셋째 오라 버니	약주, 안주	당진 신평
	3월	6일	여동생 (주서택)	입던 저고리, 새로지은 속 옷, 청어, 감장	보령
				콩 열 말, 백지 두 권	남원
		27· 28일	강위재	진임(참깨), 마름질한 옷, 소주 한 병, 생치 하나, 백지 세 권	임실

29) 1638년 5월 4·5일. “노 툷 콩 너 말 가져오다”
 1638년 9월 20일. “의정부로셔 젓 두 독 오다”
 1638년 9월 22일·23일. “의정부 나모 십늑동 오다”
 1639년 2월 30일. “노 트라 가다”

30) 이성임, 『16세기 조선 양반관료의 사환과 그에 따른 수입 -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45, 94쪽 참조.

		아우	행담(상자) 하나	
	30일		백미 다섯 말, 매조 두 말, 백지 두 권, 도미 세 마리	임천
4월	14일	오라버니	백미 다섯 말, 며조 다섯 말, 적두 두 말, 진임 한 말, 쌀 두 되, 백지 두 권, 고리와키 하나, 누룩 한 동, 건티 둘	금산
	17일	윤좌랑택과 소서방택	편주(떡, 술)	
	28·29일	송서방택	약주	이좌랑택과 별실 문안
윤 4월	4일	눈술(증)	공목 두 필, 썩	노성
	5일	장생원	조기 한 못, 마늘	이좌랑 문안칭님
	8일	윤좌랑택	약주	
	28일	심택 (1591-1656)	조기 두 못, 민어 하나, 세하(細蝦), 석화 것 각 세 되, 싱조기 한 못	부안태수
7월	16·17일	원님	백미 네 말, 장 두 말, 청어젓 한 드름	
8월	9일	귀성의 상사	무명 한 필	贈(부조)
	16일	유좌수택과 송감사택	편주(떡, 술)	
9월	5일	조엄 오라비	밭 두 말, 민어 하나	홍산
	28일	斗經택	편주, 안주	
10월	5일	부안 별좌	약주 둘, 안주	부안
	8·9일	서울	누룩 한 동, 통노고 ³¹⁾ , 상	서울
	11일	조별좌택	약주 한 병	
	16일	의주택 형님(사춘 동 서)	음식, 약주	
	19·20일	남원 서리올 ³²⁾	문어, 도미, 홍합 차반(반찬) 여러가지	남원, 당진
	23일	심제(沈제) 고을 원님	조기 서툰, 민어 하나, 건티 하나 싱티 하나, 호산춘 ³³⁾ 한 병	
11월	2일	사촌	고리, 키, 장 두 말, 청밀 두 되, 포육 두 접, 건티 세 마리	금산
	6일	아우	편	

1638년 (무인년)	12월	11일	막석(중)	술이 ³⁴ , 민어 하나	서산	
		14일	통이(중)	목화 130근	개령(김천)	
		25일	전라감사	밭 한 섬		
		1일	윤좌랑택	편주, 안주		
		9일	회덕	목미와 진임 두 말, 장 한 말, 고리 돌, 키 하나 오합 ³⁵ 하나	회덕	
		11일	이도사택	약주		
		16일	이판서	싱티 하나	원님의 문안칭냄	
		17일	유생원 오라라 버님	의이 ³⁶ , 밭, 엿	당진 신평	
			김진사	편, 약주	보령	
		21·22일	전주판관	박산 ³⁷ 세 꾸러미, 청어 세 두름	전주	
			전주부윤	박산 두 단, 생치 한 마리, 건시 한 집, 잔상(술, 음식)	전주	
			여산원님	잔상	여산	
			사촌	싱티 네 마리, 건티 세 마리, 실과, 감장, 곤장	금산	
		27일	고을	등미 다섯말, 소곰 서말, 게 젓 스무 마리	여산	
		29일	금구현령	유청 ³⁸ 두 되, 싱티 하나, 뿔 두 마리, 관목 ³⁹ 두 드름	김제 금구	
		1월	2일	송서방택, 안서방택	음식	
			8일	소서방택	음식	
			9일	양성립의 부	조귀 다섯 못, 민어 두 마리, 하해 ⁴⁰ 다섯 되, 난해 ⁴¹ 세 되	
				양성립의 모	유지 열 장	
13일	원님 趙涑		싱어 한 못, 싱계 하나, 민어 하나, 관목 세 두름	임피		
	趙涑의 부인		건시 한 집, 민어 돌, 난해 두 보자기	임피		
14일	南正字		약주 한 병	금구		
19일	송서방택		주찬 ⁴²			
	유좌수택		편주	8촌간		
20일	윤좌랑택, 이생원택		편주			
27일	보령		쇼주 두 병			
	별좌택		쇼주 두 병			

2월	2일	홍정택	술 한 병	
	3일	영월사람	두 바리 양식, 마랑(馬糧)	
	4일	효신의 어머니	술 한 병, 난 짓	
	5·6일	통일과 겨집, 명옥	편주, 안주	중
	9일	선택에게	보리 씨 네 말, 무명 한 필	중에게 줌(농기와 보리 파종)
	10일	통신의 겨집	소주 한 병, 경단, 떡, 술	중
	15일	엄(中房), 통신	소주, 압난(鴨卵)	
	21일	조지평택	소곰 세 말, 싱디·싱선 하나, 게젓 열 마리, 감장 한 항아리	충주 목계
3월	3일	논디	편주	
	5·6일	노경국	술 한 병	
	15일	남촌 이생원택	편주	贈
		별좌택	우케 ⁴³⁾ 열 말을 보냄	
	21일	월탄	큰 부어 ⁴⁴⁾ 두개	
	25일	효신	술 한 병	
		안대훈 (보성군수)첩	약주, 안주	충주 이안
		26일	박진사	반찬 가지가지
30일		안철지첩	곶전 ⁴⁵⁾ 고 약주	
4월	14일	이민급	정조 ⁴⁶⁾ 두 섬	중원 승선
	20일	효신어머니	소주 아홉복자, 압난 ⁴⁷⁾ 열개	
	25일	이생원택	편, 조그 한 몫	
5월	1일	이생원택	편, 잉도	
		합덕택	편, 술	
	16일	이생원택	편	
20일	등방어머니	소주 서너 복자, 슬고 ⁴⁸⁾		
6월	11일	임효달 판사	약주	서울 본가
	16일	영안위 홍주원, 한형길, 조홍해(조경), 이도사	장, 소주 한 병	
7월	2,3일	감찰	소주	
	19일	네싱	조희 ⁴⁹⁾ 두 권	
9월	20일	議政府	젓 두 독	
	22, 23일	사직 참봉	약주, 낙디 ⁵⁰⁾	
		의정부	나모 십육 동	

	10월	8일	의정부	술 세 동이, 대구 세 마리	贈
1639년 (기묘년)	1월	6일	니우경	술 네 병	
	3월	21일	서산	벼, 조 스물 일곱 말	
	4월	23일	당대싱	밭 한 말	贈
	6월	20일	굿쇠(노)	목 한 필	청풍
		21일		여섯 섬 여섯 말, 보리 세 섬	당진
	9월	6일	박삼재택, 이정 자택, 연양군택	술 한 동이 씩	贈
			엄성구, 이상 주, 정화제	목 한필씩	
		8일	박진사	목 반 필	贈
			허진사	밭 다섯 되	贈
			민응경의 세 아들	목 한 필	贈 (진사합격기념)
		28일	조감찰택	약쥬, 안쥬, 편	
	11월	29일	조정	견약 ¹⁾ 세 그릇, 빅쥬두 병	
12월	13일	燕岐	잡은 것(소나 돼지?)		
	17일	김응상의 거집	편		
	18일	안동 남판관택	책력	贈	
1640년 (경진년)	5월	12일	민응형	쇼쥬 두 병, 쥬찬 ²⁾ , 목 두필,	홍주목사 편에 보내음
		19, 20일	예조	술 네동히, 대구 네(마리)	贈
	6월	2,3일	조후씨 부음	정포 ³⁾ 한 필, 면두 ⁴⁾ 겹 옷, 빅미 두 말, 빅지 두 권	贈(부조)

31) 품질이 낮은 낫쇠로 만든 작은 술.

32) 당진군 대호지면 적서리(『역주병자일기』 참조). 윤좌랑택.

33) “호산춘(壺山春)은, 모월(某月) 초하룻날 흰 쌀 1말 가운을 매 씻어 곱게 가루를 만들어 냉수 7되로 고루 버무린다. 다시 끓는 물 1말 8되를 흠뻑 뿌려 젓고 섞으면 쌀이 끈적거릴 것이니, 싸늘하게 식거든 누룩가루 2되, 밀가루 2되를 고루 섞어 독에 넣어 빛는다. 13일째가 되면 또 흰쌀 2말 가운을 매 씻어 고운 가루로 만들어 끓는 그릇에 담고 끓는 물 2말 가운을 고루 섞어 식힌다. 누룩가루를 넣지 말고 앞서 빛은 술밑과 고루 섞어 제이차 술밑으로 삼는다. 13일째가 되거든 흰 쌀 5되를 매 씻어 찌고 여기에 끓는 물 5말을 부어, 물이 골고루 먹게 한다. 이것을 대자리에 펴서 식힌 뒤에 누룩가루 2되, 밀가루 1되를 2차 술밑과 섞어 독에 넣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곳에 내놓는다. 덥지 않으면 술맛이 변하지 않아 두어 달 지나도 먹을 만하다. 또 다른 방법은, 둘째번 5말을 가루로 만들어 찌서 익혀도 좋다. 《여산방》”(『山林經濟』 2, 治膳, 〈醱酒〉)
호산춘은 전북 익산시 여산면의 지역 명주이다. “大抵東方郡邑。以酒名者。平壤紺紅

이상의 선물수수 내용을 분류해 보면 ① 곡물류 ② 해산물류 ③ 떡·주류 ④ 치계·포·육류 ⑤ 양념류 ⑥ 과일·과자류 ⑦ 음식류 ⑧ 면포·의류 ⑨ 문방구류 ⑩ 생활용품류 ⑪약류⁵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곡물류 : 콩(말)·참깨·백미(말)·적두·보리 씨(말)·말린 벼(말)·벼(섬, 말)·울무·中米(말)·조(말)·마태.
 ② 해산물류 : 청어·문어·홍합·생치·도미·건치·조기(못)·생조기·민어·세하·굴 젓(되)·청어 젓(드름)·세우 젓(되)·알 젓(되, 보자기)·생어(못)·마른 청어(드름)·게 젓(마리)·붕어(개)·젓(독)·낙지·대구.

露。韓山小麴酒。洪川白酒。礪山壺山春。擅名一國”。(『오주연문장전산고』, 人事篇, 服食類, 酒麵 〈清明酒辨證說〉)

- 34) 『역주병자일기』(1991)에서는 ‘살림살이’로, 민찬(2008)은 ‘쌀’로 풀이했다.
 35) 음식을 담는 놋그릇의 일종.
 36) 薏苡, 울무.
 37) 薄餼, 산자에 풀이나 엷을 바르고 잣이나 호두 등을 붙인 것.
 38) 乳清, 젓을 가만히 놓아두었을 때 위에 고이는 노르스름한 물. 乳糖의 원료.
 39) 貫目, 마른 청어.
 40) 蝦醢, 새우 젓.
 41) 卵醢, 알 젓.
 42) 酒饌
 43) 찜지 않은 말린 벼.
 44) 붕어
 45) 花煎
 46) 正租, 벼.
 47) 鴨卵, 오리 알.
 48) 살구.
 49) 종이.
 50) 낙지.
 51) 煎藥.
 52) 酒饌.
 53) 正布, 품질이 좋은 베.
 54) 명주.
 55) 선물 내용의 분류방식은 이성임(『16세기 이문건가의 수입과 경제생활』, 『국사관논총』 97집, 2001)과 김선기(『연재 송병선가 수증 선물단자에 대하여』, 『인문학연구』 75,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8)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 ③ 떡·주류 : 술·소주·약주·호산춘(병)·누룩(동)·떡·백자주.
- ④ 치계·포·육류 : 포육(접)·생계·오리 알·생치·건치·닭(마리).
- ⑤ 양념류 : 감장(항아리)·메조·꿀(되)·마늘·장(말)·소금(말)·청밀·간장·유청(되).
- ⑥ 과일·과자류 : 건시(접)·경단·앵두·박산(단).
- ⑦ 음식류 : 팔죽(동이)·저녁밥·화전·엿.
- ⑧ 면포·의류 : 저고리·속 옷·무명(필)·목화(근).
- ⑨ 문방구류 : 백지(권)·유지(장)·종이(권).
- ⑩ 생활용품류 : 행담(작은 상자)·고리·키·노구술·오합·상·나무(동).
- ⑪ 약류 : 煎藥(그릇).

남평 조씨가 받은 선물은 피난기에는 옷(저고리, 속 옷)과 음식(밥, 떡, 팔죽), 그릇(노구술, 오합, 행담, 상) 등 당장 시급한 생활 물품들을 선물로 받았다. 피난기와 귀환기 공히 선물수수의 빈도수를 많이 차지하는 물품은 곡물류와 해산물류, 술과 떡이 특히 많다. 술은 약주와 소주가 가장 많았고, 여산 지역의 명주 호산춘의 기록도 보인다. 남평 조씨가 받은 선물은 남성들의 일기 문헌에서 빈도수가 높은 선물 곧, 부채나 지필묵과 같은 문방구, 갓과 지팡이, 책 등은 종이를 제외 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도 특징이다. 피난기에는 친지는 물론이고 체류 지역마다의 지방 관리로부터 소홀함이 없는 대접과 인사치레를 받았고, 서울로 귀환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상과 같이 남평 조씨가 방대한 양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면은, 남편이 의정부의 요직으로 두루 요직을 겸하여 누구도 소홀히 대할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던 점과, 남편 역시 주위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하였기 때문이다.⁵⁶⁾ 남평 조씨가 선물수수는 어려울 때, 때로는 여유가 있을 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相互扶助’를 통하여 ‘相互共生’의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남평 조씨는 이런 贈物運用의 주체자로 가정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물질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56) 1636년 12월 26일. “녕감 번남내 다 극진히 흐시니 녁감이 곡진이 더접흐시는 다시로다”

3.3 농사운영

남평 조씨는 피난기와 귀환기에 철저히 농사운영을 하였다. 남평 조씨 소유 토지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함경도, 경기도, 서울,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이다. 멀리 산재해 있는 농토에서는 주로 외방노비들을 통해 受貢형태로 운영하였다. 그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638년 1월 22일. “툇이 전라도 공 바다오다”
 1638년 2월 23일. “툇이 경상도 공 바다오다”
 1638년 3월 23일. “툇이 일봉이 청풍 가 두 바리 며조 십팔 두 풋 열 날굽 말
 당니 바든 풋 서 말 셔미 며조 미슈의 풋 두 말 가져오다”
 1638년 4월 28일. “청풍세미 공 세 필을 하여와시니 도로 주기도..명오기 공도
 쌀 열 너말 가웃, 진임 접미 각 일두 하여왔다”
 1638년 5월 13일. “툇이 툇이 강릉 가더니 오다 우케 녀 섬의 머육 빅 열닐굽동
 대구 삼십늑”
 1638년 5월 19일. “청풍가 우케 석 섬으로 두 바리 시러오고”
 1638년 11월 26일. “툇이산희 전라도 슈공가다”
 1639년 2월 7일. “툇이 적성 가 콩 시러 오다”
 1639년 2월 25일. “어제 텃췌셔 우케 아홉섬 오다”
 1639년 2월 28일. “나죄 툇이 산희 전라도 공 바다오다”
 1639년 6월 20일. “청풍 세미 굿쇠 공목 옛 필”
 1639년 7월 28일. “덕경이 오다....기령 이경의 목 팔십 삼 덩 제게 농스치 열 섬
 잇던디 무목하니 스십 일덩 하여 왔다”
 1639년 9월 6일. “기췌니 모녀 공목 네 필 하여오다”
 1639년 9월 20일. “슈원 선탁 대복이 공하여 오다”
 1639년 10월 19일. “춘천 종돌 오니 이빅여근 오던디 갖가스로 삼십여근이 오니
 무어스로 분하고 무어술 빠리”
 1640년 윤 1월 23,24일. “툇이 맞든 우케 아홉섬 오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직접 농사운영을 하였다. 예를 들어 피난·체류 기에는 충주에서, 귀환기에는 서울에 있는 농토의 농사를 관장하였다. 『병자일기』는 농사일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농사에 대한 기록을 하였다. 직업 일자, 농지이름, 농사 내용, 동원된 인물과 물력, 소출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농지명은 충주의

경우 이안 밭, 훤당 논, 벗고개 논, 돌십골 논, 거리실 논 등이고, 서울은 동막논(마포 소재), 사 𪎮고지(뚝섬근처)밭, 삼개(마포), 마전(麻田, 종로구 외룡동, 권농동, 봉익동 근처) 등이다.

농사는 주로 벼농사와 보리농사이고 메밀과 녹두, 울무 등 밭작물도 병행하였다. 일의 내용도 논 갈기부터 시작하여 쇠스랑질, 가래질, 썬래질, 나래질, 김매기, 추수하기 등이다. 남평 조씨는 김을 네 벌 땀 정도로 논농사 일에 철저하였다. 1639년 6월30일의 일기에는 “동막논 네 볼채 다스시 가 밭다”라고 기록하였다. 논농사에서 김매기는 보통 초벌(아시), 두벌, 세벌(만물) 세 차례로 행해진다. 부지런한 농부가 세벌 뒤에 한 번 더 네벌 매기를 한다고 한다.⁵⁷⁾ 가장 힘든 세벌매기를 끝내고 나면 시기적으로 7월 초순이 되고, 농부들은 머슴날이라 불리는 ‘호미씻이’를 하며 한 판 흐드러지게 굿판을 벌여 노고를 푼다. 남평 조씨의 네벌 김매기 농사를 통해서도 농사운영에 대처하는 철저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김매기에 동원된 사람의 숫자는 최대 72명까지였다. 충주에서 체류하던 1638년 5월 18일 일기에 “거리실 논 단말^ㅁ이논 두벌채 밭고 그 논의 대되 닐흔 둘 드러다”고 기록 하였다. 충주 소재 전답도 그간에는 외거노비들에 의해 붙여졌던 일 이었을 터나 난리통에 체류한 인연으로 짓는 농사일로는 규모가 방대하고, 매우 주도면밀하게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사는 서울 귀환기에도 변함없이 관여하였는데, 충주체류 시기에 비해서는 규모나 기록면에서 많이 줄어들었으나 변함없이 운영하고 있다.

남평 조씨 집안의 가계운영의 수입원은 남편의 급료보다는 전국에 분포한 토지의 소출과 들어오는 선물에 의존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노비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손님 접대를 위해 농사운영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행위였고, 그 운영의 주체자는 남평 조씨였다.

57) 17세기 농법과 오늘날의 농법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2리 물폐기 마을에 사는 농부 양승환(남, 1930)의 진술에 의하면 농사가 기계화되지 않은 시절, 네벌 매기는 부지런하고 농사를 잘 짓는 농부만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 세벌매기 만 하여도 말복더위의 폭염에다가 벼 잎이 자랄 대로 자라 역세기 때문에 온 팔등을 벼 잎으로 베어져 피가 흘렀다고 한다. 네벌을 매면 쌀의 수확량이 된다고 한다.

4. 인간경영

1638년(무인) 2월 3일 일기에는 “어디로 가나 난리 중이지마는 우리에게는 이상 하계도 먹을 사람이나 왕래인들이 모여드니 신기한 일이다”⁵⁸⁾ 라고 기록하였다. 여산을 떠나 충주에 도착하자 영월 사람이 소를 가지고 마중을 나와 말 먹이까지 갖추어 준 사실에 고마움을 느끼며 한 말이다. 남평 조씨의 말대로 부인의 피난 여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였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나와 맞이하고 전송, 위로, 문안, 기별, 선물을 하였다. 모여든 왕래인은 부인의 피난·체류지역의 지방관은 물론이고, 부인이 있는 지역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 관리, 관리의 처와 첩, 친척, 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남평 조씨는 이러한 현상을 남편이 “주위 사람들에게 극진히 대접하였기 때문”⁵⁹⁾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공을 남편에게 돌리고 있지만 난리 통에 남평 조씨의 인품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 여겨진다. 남편 귀환 이후에는 “손님들이 종일 와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⁶⁰⁾고 하였다.

이 장에서는 남평 조씨가 자신을 둘러싼 타자들 곧 남편, 자녀, 며느리, 서자, 조상, 친족, 빈객 등과의 관계형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인간경영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남평 조씨의 인간경영법은 전통적 부덕 개념인 ‘奉祭祀·接賓客’의 관념적 차원을 넘어 자신과 관계 맺은 이들에 대한 최선의 존중이요 인격적 대접이었음을 알 수 있다.

4.1 남편

“남방 추위도 이러하거든 저 쪽은 어떠한가. 무슨 일을 당하여도 생각하지 않는 일이 없다”⁶¹⁾ 심양에 볼모의 처지로 가 있는 남편에 대한 애타는 사랑의 표현이다.

58) 1638년(무인) 2월 3일. “아마더 가나 난리 둥이나 슈샹 우리게는 머물사람이나 왕녀인이 나 모두 니고이타”

59) 1636년 12월 26일. “녕감 번남내 다 극진히 하시니 녕감이 곡진이 디접하시니 다시로다”

60) 1638년 6월 27·28일. “손남내 종일 오시니 다 문 기록하다”

61) 1637년 11월 30일. “청 극한이니 남방 치위도 이러커든 더 다히는 엇더흔고 아마일의 다드라도 아니 심각 호올이리업다”

남평 조씨의 인간경영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남편 일 것이다. 남이옹의 심양볼모기 1년 반 동안 남편에 대한 심회는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60 중반의 노부인이지만 남편에 대한 애뜻함과 그리움, 걱정, 신뢰, 의지, 기원 등은 일기 도처에서 읽힌다. 매일 저녁 남편의 꿈을 꾸다시피 하고, 꿈속에 나타난 남편의 모습으로 길흉을 가늠해 보고 마음을 다독인다.⁶²⁾ 남편이 언제 귀환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정신이 아득고”라는 진술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병자 이듬해인 정축년의 일기에서 이러한 표현은 더욱 자주 나타나 있다.⁶³⁾ 남편 생각을 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다.⁶⁴⁾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쏟아 내고 있다. 남편 생각에 미친 사람처럼 불안증에 시달리기도 한 남평 조씨는 남편의 무사귀환을 위해 친지일월성신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한다. 꿈과 기도는 남평 조씨의 남편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과 걱정의 해소 방법이었다. 한 밤중에 바깥 추운 뜰에 배석을 깔고 분향하고 엎드려 기도하다 방으로 들어와 옷 입은 채로 자기도 하였다.

“던디 일월성신과 절하여 비오나 그러나 정성이 브쪽혹가 감턴을 아니하시는가
평성의 하느님 원망혹은 말올 입의 내디 아니하고 평성의 사오나온 일을 아니코져
혹더니 혼 자식도 업고 이리 미양 가슴을 서기니 노푼시나 노푼시나 슬퍼보쇼셔(1637
년 11월 22일)”

62) “꿈의 녕감 보오니 하여 외여보시니 넘녀혹며 멀리 싱각혹은 정이 ㄱ이업서혹노라
(1637년 5월 9일)”

“꿈의 녕감 보옵고(1637년 6월 7일, 9월16일)”

“스신 흥츠의 녕혹여 기별은 듣노라 혹여시되 유무롤 문보오니 답답기 ㄱ이업고 집다히
는 니저겨신가 혹노라(1637년 6월11·12일)”

“극한이니 남방치위도 이리커든 더다히는 엇더혹고 아막일의 다드라도 아니 싱각 혹을
이리업다(1637년 11월30일)”

63) “정신이 간디업고 괴력이 아조업서 누어 디내니 도등 촌되가 일어나 경과혹고 흥중
회포논 불이 미양 브트니 엇디 이리아니혹리오(1637년 3월 17일)”

“이 난을 싱각혹니 ㄱ이업서 울고 안자더니(1637년 3월 25일)”

64) “오늘은 어되셔 디내시논고 싱각혹니 굿브미 ㄱ이업고 아막일의도 닛즌시업다(1638
년 3월 25일)”

평생에 하느님을 원망하는 말을 입에 내지 않고, 평생에 사나운 일을 아니하였건 만 이다지도 가슴을 썩이며 한 자식도 없이 지내는 자신을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굶어 살피달라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호소이다. 남편에 대한 격정과 근심으로 누워도 잠을 잘 수 없고, 밥도 먹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앓았다 일어섰다 날을 보내며 불안증이 극에 달한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⁶⁵⁾ 그러는 사이에 심양으로 옷과 각종 음식, 담배 등을 꼼꼼히 챙겨 보내기도하였다.

〈표 5〉 【심양에 역류 중인 남편에게 보낸 물품 내용】

날 자		물 목	
정축년 (1637년)	4월	2일	모시천의, 모시겍옷, 홑옷, 겹바지, 적삼, 속옷누비배오 로기, 버선(중 후복의 겍옷과 적삼)
	윤4월	16일	영초 ⁶⁶⁾ 열 덩이
		26일	담배 다섯 덩이, 포육 두 접
	5월	22일	녕초 다섯 덩이, 조기 여섯 못
	6월	2일	녕초 여섯 덩이
		10일	검은 관대, 금띠, 혼니불 하나, 대구 여섯
	7월	16 · 17일	포육 두 접, 전복 네 곳, 민어 하나, 조기 한 못, 양몰외니 (?), 금은화, 차거리,
12월	21 · 22일	사탕(버선하나크기), 편, 박산 한 당작. 건시 두 접, 건치 두 마리, 조기 두 못 반, 민어 세 마리, 대두 한 마리, 천초 ⁶⁷⁾ 일곱 되, 영초 열 덩이, 양식	

미칠 듯이 기다리던⁶⁸⁾ 남편이 강을 넘었다는 귀환소식이 담긴 편지를 받고(1638년 5월 4,5일) 몸은 궁중으로 날아 오른 듯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래서 그 심정을

65) “꿈마다 말리 밧기 가 겨신 이를 보오니 진실로 수만흔 피를 7리오디 못흐미로다...가슴 이 특々혀어 어니 약으로 고릴고 나오시는 귀별 곳 이시면 필연 식환허려니 이리 헤고 더리헤니 정신이 어림장갸고 산이나 하늘하나 바라고 디내나 누운듯 잠을 자며 음식이 비록 잇다 머글 맛음이 이시며 도셔 밥도 먹디 못흐고 탕증은 심흐고 이를 엇디허리 미친사름갸티어 안즈락닐락(1637년 11월 17일)”

66) 英納.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한 가지.

67) 川椒. 초파나무 열매의 껍질. 성질이 따뜻하여 심복통, 구토, 설사에 씀.

68) “맛음이 미칠듯하니(1638년 4월 21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남편의 환조를 밤낮없이 축원해오며 침식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노부인 남평 조씨. 남편에 대한 무한 사랑의 감동이 다음 편지에 묻어있다.

“녕감 월강하시다코 유무를 가져오니 즐겁고 식환히미 아므라타업서 몸이 공동의
오른듯 놀가 시브니 었디 다 기록히리(1638년 5월 4,5일)”

1638년 6월 2일 남편이 귀환하여 함께 서울 집에 거주하게 된 뒤로는 남편의 벼슬살이 일정과 벼슬살이의 고단함, 사람들과의 잦은 음주, 음주로 인한 발병을 걱정하는 일상을 보냈다. 남이웅의 관직이동과 하루하루의 자세한 일정, 손님들과 마신 술의 잔 수 까지 상세히 기록하였다. 어떻게 마신 술의 잔 수를 기록할 수 있었는지는 미지수이다. 손님들의 술대접 자리에 함께 배석한 것인지, 아니면 차려 낸 술의 양을 보고 잔 수를 가늠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무튼 남평 조씨는 매우 섬세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 인 것만은 분명하다. 남편이 마신 술에 관련된 기록을 1639년을 중심으로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39년 1월 6일. “니첨디덕의 가 잠쥬히시고 저물게야 드르시다”

1639년 1월 11일. “니대스간 만경 가시다 식후 사직골 니판셔덕의 가 취히여 어둡게
야 드르시다”

1639년 2월 19일. “나죄 덩냥필 덕의 가 취히여 드르시다”

1639년 3월 1일. “전창군덕의 가 약쥬 잡습고 어둡게야 드르시다”

1639년 3월 23일. “심달 심제시 스도시 판스와 아홉 잔씩 자시니 쥬인도 취 손들도
다 취 어둡게야 파히시다”

1639년 3월 25일. “연양군 흥승지 한좌윤 경상감스 변삼근 허국 니경업 니경의
박황 다 와 취히시고 남참봉 조감찰 삼형테 다 모다 밤드도록
말히다”

1639년 4월 19일. “동교의 가 대취히여 드르시다”

1639년 4월 23일. “박황 참판 와 다숫 잔씩 자시고 또 전창군 와 두 잔 자시다
일쥬⁶⁹⁾”

1639년 4월 25일. 풍녕군⁷⁰⁾덕의 가 잠 쥬히시고 또 와 전준민 네 잔 먹다”

69) 越宿. 밤을 새우다.

자식들의 생일이나 제삿날에 술잔을 부어 올리며 자식에 대한 애끓는 사랑과 회한을 풀어낸 말이다. 남평 조씨는 슬하에 1녀 4남의 자녀를 두었으나⁷⁶⁾ 모두 어린 나이에 죽었고, 13세에 죽은 斗亮(천계)과 25세에 죽은 斗相은 특히 더 한 맺힌 자식이었다. “어엿블샤 내 즈식들 설울샤 아이고”⁷⁷⁾, “어엿블샤 내 즈식들 앓가울샤 내 즈식들”⁷⁸⁾, 늘 그럽고, 아깝고, 불쌍하고, 서러운 존재들이다. 남평 조씨는 이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에 ‘술드리(살뜰이)’ 사랑으로 훈육하였다.⁷⁹⁾

9월 26일은 남평 조씨 본인의 생일날이다. 자녀들은 살아있을 때 어머니 남평 조씨의 생일날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20일 즈음부터 어머니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술을 따라 올리며 어머니 곁에서 화락하였다.⁸⁰⁾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이 꿈이 되어버린 지금 남평 조씨는 가슴을 태우며 서러운 정이 복받쳐 올랐던 심회를 더욱 간절하게 기록하였다.

“집안회 열 나쁜 저비 중옹이 샷기쳐 누는 양을 보니 샷기도 놀며 아느며 트내여 머기는 일을 보니 인간 사름은 더 증상을 불위허거니 엇다아니 슬프며 설우리(1638년 4월 28일)”

따스한 4월 봄 어느 날, 남평 조씨 집안에 제비 암수가 새끼를 쳐 가족 여나쁜 마리를 일구어 낳고 들었다. 암수 제비는 새끼 제비를 안아 주고, 먹이를 물어다 먹여 주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게 된 남평 조씨는 인간 사람으로서 저 짐승을 부러워하게 되니 어찌 슬프지 않으며 서럽지 않으리오? 라고 탄식하였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그리움이 사물을 대할 때 마다 한시도 마음속에서

75) 1639년 11월 8일.

76) 앞의 주 14) 참조.

77) 1637년 11월 12일.

78) 1638년 2월 15일.

79) 1638년 4월 5일 “두 아들은 십삼세식 이십오세 나를 빌려 모직되어 술드리 스랑허여 다 업시하니”

80) 1639년 9월 26일. “등쇼 안해오다 이 날이 성신일이라 즈식 생각는 정시 만々 하니 어니 일의 아니 설우며 니즌스이 이시리 네날 내 알팍 부체이셔 스프날헝브터 머글것 허여주고 뎡모의 술 부어 머그라탄 이리 썸이되니 술하 설위허며”

떠날 날이 없었다. 한 해가 다 기울어 가는 12월 끝자락의 꿈속에서 만난 斗相. 문득 꿈을 깨어 서러움이 밀려와 “다시 보이고 말이나 해 보아라”라고 통곡하다 지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창자 마디마디를 붙태우니 어느 물로 이 가슴속의 불덩이를 꺼까?”⁸¹⁾ 남편 귀환 이후, 항상 즐거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도 가슴 속 응어리는 한으로 맺혀있었다. 자식의 7년 째 기일되는 날 자식이 꿈속에서조차 잘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 조씨는 그 자식이 ‘이제는 어머니가 나를 잊으셨는가?’라고 생각하여 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서러워하였다.⁸²⁾

남편의 벼슬과 명예가 높고, 모든 조건이 만족한 듯 하여도 남편 조씨의 가슴에 맺힌 한은 오로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있었다. 남편의 귀환과 함께 피난기를 마감하고 서울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⁸³⁾ 남편이나 본인의 생일 등 즐거운 가족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자식들과 교통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남편 조씨 66세 되던 천계(斗亮)의 제삿날 남편과의 부부 생활을 49년을 회고하며 한 자식도 남기지 못한 삶을 애태우며 매일 “어서 죽어지이다”라고 신께 빌기도 하였다.⁸⁴⁾ 남편 조씨는 자식들을 대함에 있어서 비록 살아있지는 않으나 심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더 가깝고, 그녀의 삶에 가장 큰 존재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첩의 아들 斗臨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첩 조식인들 엇디아니 크리”⁸⁵⁾ 이 말이 남편 조씨의 서자 두림에 대한 일관된 생각이다. 남편 조씨의 두림에 대한 사랑은 친자녀들의 사망으로 인한 결핍을 두림이 대리만족 시켜줄 수 있다는

81) 1637년 12월 25일. “찌여 호뭇겹고 설운 정이 무흔혀여 울며 닐온마리 다시 뵈고 말이나하라 니르넨 다시 즘을 일우디 몬혀고 미양 촌당을 슬우니 어니 물로 끌고”

82) 1639년 10월 3일. “상시 즐거운 사롬기디 디내니 제 정녕이 나를 니즌가 생각혀는가 더욱 설워 호노라”

83) 1638년 6월 2일. “지뵈 드러오니 녁감 보옵고 일개 모드니 귀운이나 그만혀여겨시니 일가 일언 경시 업스느 늑년만의 내 지뵈 도라오니 아기에 잇던 디 종적을 보논듯 반갑고 설운 정을 엇디 ㄹ올허리”

84) 1639년 4월 5일. “턴계 귀일이라 디내니 엇디... 일주거 이리 내 간담을 티오논고 내 나히 불셔 늑십 늑세오 부뵈 동겨혀완디 스십구년이라 혼 조식이나 잇고 우리 이리 므던홀 거시로디 미양 두림고 무셔우니 미일 으셔 죽겨지이다 축원호노라”

85) 1640년 1월 18일.

점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그 보다는 남편의 자식이 곧 내 자식이라는 본원적 사랑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여겨진다. 두림은 남평 조씨의耳目같은 존재였다.⁸⁶⁾ 남평 조씨가 늙어 가면 갈수록 “넌들 첩즈ㄴ티 녀기며 켄들 덕되라흐랴”⁸⁷⁾ 곧 남평 조씨도 두림을 첩의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고 두림 역시 남평 조씨를 큰어머니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첩간의 심리적 갈등에서 본다면 보기 드문 사례로 여겨진다. 남평 조씨 입장에서 본다면 두림은 적국⁸⁸⁾의 자녀이다. 적국의 자녀를 친자녀 이상으로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였다.

두림은 남평 조씨의 양손자 重召⁸⁹⁾와 사촌 斗六과 함께 천렵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⁹⁰⁾ 수시로 남평 조씨의 심부름으로 전국(남원, 회덕, 의주, 서울, 문의, 파주 등)을 다녔고, 남이움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러 다녔으며 남평 조씨의 친정어머니 곧 외할머니의 제사도 지냈다. 이러한 정황에서 두림에 대한 남평 조씨의 사랑과 믿음은 절대적이었다.

- ① “오늘 정스의 도현을 흐시니 전의는 대스현이 민망터니 이번은 이리 쇠현호 이리 업스니 비록 후의 가나 안죽 죽이니 깃브미 만々흐다 모다 티하오니 안죽 면흐나 엇딜고 흐노라(1640년 3월 11일)”
- ② “이 날 정스의 배조판셔 흐시니 티즈 갈 일로 ㄴ이 업스니 별좌 업슨 후는 슈족이 업시 인는 사름이 되어 디내다가 천남이 즈란 후는 온갓 이리 이목ㄴ티 잇다 더리 보내게 되니 이런 이리 업서 흐노라 넌들 첩즈ㄴ티 녀기며 켄들 덕되라흐랴 이리 늘고 병니예 이셔 다시 보디 몬홀가 ㄴ이 업서 흐노라(1640년

86) 1640년 3월 9일. “두림이 가게되니 흐 아히로 이목ㄴ티 잇다가 더리 보내는 정스 ㄴ이 업스니”

1640년 4월 26·27일. “별좌 업슨 후는 슈족이 업시 인는 사름이 되어 디내다가 천남이 즈란 후는 온갓 이리 이목ㄴ티 잇다 더리 보내게되니”

87) 1640년 4월 26·27일.

88) 김호연재(1681-1722)는 『자경편』〈계투장〉에서 첩을 ‘적국’이라 표현하고, “첩은 집을 크게 어지럽히는 근본이고, 적국이라는 것은 결코 서로 가까이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妾也者, 大是亂家之本. 敵國者, 決然不可相近者也”)

89) 남이움의 중형 南以俊의 손자였는데, 斗相에게 양자 갔다.

90) 1637년 4월 3일. “진스 두류к 등쇼 두림이 앓 내히 천렵흐려 몬다”

4월 26·27일)”

- ③ “두림이 지성부 가서 혼 유무보니 그 스이도 반갑기 만々타 가는 길히 접々 아득히니 어엿블샤 부모 두고 어린 즈식 두고 어디라 가노고 이런 시절이 네도 잇던가(1640년 7월 3일).”

①②③의 일기는 두림의 置子(質子)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내용이다. ①은 남편이 대사헌의 직분에 임명된 일이 형조판서 보다는 직위가 아래이나 기쁘기 한량없고 시원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편의 직위가 내려가 아들이 치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②의 일기에서 남편이 다시 예조판서에 임명되어 아들이 치자로 가게 되자, 이목같은 두림이와 헤어짐에 대한 두려운 생각에 한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급기야 ③의 일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림은 심양으로 떠나게 되었고 심양으로 가는 도중 개성에서 보낸 두림의 편지 한 통을 받고 ‘부모와 자식을 두고 어디로 가노고?’라며 불쌍하고 기막힌 상황을 기술하였다. 남편 조씨는 두림이 비록 첩의 자녀이나 친자 이상의 사랑으로 품었고, 그로인해 두림은 남편 조씨의 귀와 눈이 되어 하나의 열린 가족이 되었던 것이다.

4.3 며느리

남평 조씨에게는 창골며느리 이씨와 여주며느리 신씨가 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스물다섯 살에 운명한 南斗相의 부인이다. 자녀를 두지 못하고 모두 사망한 이 두 며느리의 생일과 제삿날에는 피난기인 1637년에도 거르지 않고 차례를 지내주었는데 자식과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치러 주었다. 창골며느리 이씨의 경우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창골며느리 싱일다례하니 새로이 생각이 ㄱ이업다.(1637년 5월 26일)”
 ② “창골며느리 기제디내니 새로이 슬허호노라.(1637년 8월 25·26일)”
 ③ “창골며느리 싱일이라 차례하니 네일 생각고다 옛 히 이리 불셔 네이리되여 슬프고 생각이 ㄱ이업서 호노라.(1638년 5월 26일)”
 ④ “창골딕 기일 디내고 새로이 슬프다.(1638년 8월 26일)”
 ⑤ “창골며느리 싱일다례하다.(1639년 5월 26일)”
 ⑥ “창골딕 기제.(1639년 8월 26일)”

⑦ “창골머느리 성일이라 다례디내니 슬허호노라.(1640년 5월 26일)”

여주머느리 신씨의 생일과 기제 날에도 변함없이 술을 올리고 젊은 사람들의 신주를 보고 슬픈 정을 표현하고 간담을 태웠다. 남평 조씨와 두 머느리들과의 고부간의 인연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늘 그 젊어 죽은 머느리 자식들에 대한 생각이 끊어 없고, 슬프다. 남평 조씨는 아들 머느리들과 못다 한 사랑을 손자머느리 重召의 부인 이씨⁹¹)에게 쏟아 부었다.

- ① “동소의 안해 오니 슬프고 설운 경과 제 인물이 하 그즈니 깃브고 든스 허미 그이 업스나……나 허나 미일 병니예 이시니 인스를 아디 못허여 빳비 드려다가 보니 제스 티개나 홀 아기네니 내 주저도 엇덜고 혼념이 업스니 깃브기 마이업다 (1639년 4월 13일)”
- ② “머느리를 드려서 보니 하 단아코 온갖 인식 브족헌디 업스니 깃브기 만스 허다……나죄 머느리 가니 셉스 허다 하 정 표티 못허여 즐거시 업스니 스프구 노비를 비희헌 경의 주어 보내다(1639년 4월 15일)”
- ③ “머느리 오니 반갑고 든스 허다(1639년 5월 22일)”
- ④ “새아기 가니 셉스고 그 방이 뷔니 마이업시 굿버호노라 아기 이실적지티 든스 허더니 마이업시 셉스다(1639년 5월 30일)”
- ⑤ “요스이는 머느리를 혼디이시니 든스코 저희인논듯 반갑고(1639년 10월 3일)”

①의 일기를 보면 손자머느리가 죽은 자식들의 방에 있으니 자식들이 있는 듯 반갑고 기쁘고 든든하다. 그러나 남평 조씨 나이 66세. 그것도 매일 병속에 있는 노부인은 마음이 바빠기만 한데, 손자머느리를 가까이 데리고 있어보니 ‘제스 티개’ 곧 ‘祭祀와 治家’를 할 만한 아이였던 것이다. ‘이제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조금도 염려될 것 없이’ 기쁘기 그지없다. 이 기록을 보면 남평 조씨는 여성의 가정 내 역할로 ‘제사와 치가’를 중시하였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너무도 단아하고 예쁘기 만한 어린 손자머느리를 보며 기쁘기 한량없고, 헤어지는 슬픈 정을 표하지 못하여 ②의 일기에서는 노비 스무 명을 주어 보냈다.⁹²⁾ 아마도 別給

91) 첩지 李茂林의 딸. 이무림은 남이웅과 자주 왕래하며 서로 양가에 들러 술을 마셨다.

92) 민찬은 ‘스므구 노비’에서 노비를 路費로 풀었다.(앞의 논문, 37쪽) 아무래도 ‘줄 것이

형태의 특별 선물일 것이다. 그러나 몇 명의 노비도 아니고 스무 명씩이나 되는 노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다소 파격적인 규모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 집안의 가산 규모로 볼 때, 이는 지나친 형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⁹³⁾ 노부인의 며느리에 대한 넘치는 사랑의 한 표현이면서, 이 집안의 재산 규모를 엿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또 관리를 잘 할 며느리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4.4 친족 및 빈객

남평 조씨의 친족은 친가나 시가 쪽 모두 긴밀히 내왕하며 정을 돈독히 하였다. 특히 피난기에는 함께 남하하여 혹독한 피난생활을 운명공동체가 되어 극복하였다. 여산 체류기에는 큰 동서 의주댁을 의지하여 도움을 많이 받았고 닛젓골댁과 삼등댁 등 동서들과 긴밀히 의지하며 살았다. 여산체류를 마무리하고 충주로 옮기기 전에는 너무나 많은 일가친척들이 술과 떡, 선물을 장만하여 방문하여 밤이 깊도록 그들을 대접하느라 傷寒하여 몹시 앓기도 하였다.⁹⁴⁾ 친정 부모의 제사 등에는 조카나 동생들이 모여 와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⁹⁵⁾ 이틀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하여도 잠이 오지 않았다. 정축년 친정아버지의 대기를 치르기 전 날 친정 오라버니 조엄은 홍산으로부터 무주로 가면서 쌀 두 말과 민어 한 마리를

없어서 스무 명의 노비를 주었다'는 말에 기인한 해석일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스므구'에서 '구'의 뜻을 미해결로 남겨 놓았다. 필자는 이 '구'를 노비를 세는 단위인 '口'로 보고자 한다.

93) 남이웅의 6세손 南必復의 나이 25세(건륭18년, 1753년) 때 한성부에서 작성된 호구 문서에 노비명이 자세히 거론되어있다. 노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숫자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率奴婢:9명, 逃奴婢:11명, 京 :6명, 廣州:23명, 公州:29명, 春川:19명, 金城:6명, 沔川:43명, 洪州:2명, 忠州:4명, 平壤:2명, 咸從:3명, 龍岡:4명, 黃州:14명, 江陵:14명, 麟蹄:5명, 堤川:4명, 橫城:2명, 砥平:2명, 成川:4명 총 206명이다. 남이웅가는 남이웅 이후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변변한 벼슬살이를 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남이웅과 남평 조씨 당대에는 노비의 규모가 이 보다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94) 1638년 1월 22일. “손님내 년허여 오시고 밤드도록 디접허기에 상한허여 등허 알히니 닛쌔날 길흘 묻나다”

95) 1637년 9월 7일. “죽해나 동싱이나 이리곰 무스허여 만나보니 조상 덕분인가 허노라 이틀 밤을 새야 말을 허되 줘이 업더라”

선물로 갖다 주었다. 황혼기의 오빠와 여동생 두 사람은 하염없이 울기도 하였다.⁹⁶⁾

서울 귀환기에도 많은 친척들의 방문은 계속 이어졌다. 1640년 3월 25일 남편의 귀환이후 맞이한 남편의 생일 일에는 시가나 친정 쪽 형제 조카들이 많이 모여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나생원덕 오시니 반갑습기 만々하다 경황후 후 서르 무스히곰 이서 이리 보오니
그지업고 스촌님 동의도 혼디서 길러난 스촌님이니 정이 었디 각별티 아니히리오
뜰이 우도록 말삼호오나 즘이 업슨거시로다”

1640년 윤1월 7일 일기의 내용이다. 나생원덕은 남평 조씨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사촌으로 난리를 치르고 난 뒤 무사하게 만난 정회가 남다른 듯하다. 닭이 울도록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다. 남평 조씨는 시가나 친정 쪽의 많은 혈육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각별한 정을 나누고 그들을 대접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다. 늘 남이올가를 중심으로 소식이 오고가는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빈객접대 및 관리는 남평 조씨의 중요한 일과이다. 특히 남편은 1638년 6월 십양으로부터 귀환한 후 요직을 두루 겸하였는데, 노부인은 매일 손님치레를 하다시피 하였다. “손님내 종일 오시니 다 못 기록하다(1638년 6월 27·28일).” “종일 손님네 ㄱ득(1638년 11월 19일).” “손님야 그출스이 이시며 약쥬 아니 자시리 이시랴(1639년 9월29일).” “모든 손님내 년혀여 오시니 다 약쥬 잠습고 취하시다(1640년 1월 5일).” 계속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은 약쥬 몇 잔 마시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술자리가 그러하듯이 마시고, 식사하고, 취하여 잠까지 자는 일이 많았다. 어떤 날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손님들의 행차가 이어졌다.

찾아오는 손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평 조씨가 초대하여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 남편의 생일은 물론이고, 내의원의 의녀와 약 짓는 사람들을 대단위로 불러 식사 대접을 하였다.⁹⁷⁾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내의원 직을 겸하고 있었을 때인

96) 1637년 9월 5일. “조엄 오라비 흥산으로서 오니 반갑기를 다 니르랴 들히 우다가”

97) 1638년 12월 8일. “어제 오늘 의녀 스물 다섯 약진는 사람조차 다 밥혀여 머기다”

1638년 12월 9일. “또 다술혀여 머기다”

1640년 5월 21일. “의녀 열 대되 열 다섯 밥 혀여 머기다”

것으로 보인다. 손님의 범위는 의정부의 고급 관료로부터 각 고을의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손님은 남편 쪽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편 조씨를 방문한 손님도 있고, 남편 조씨가 초대받아 간 경우도 있다. 『병자일기』에는 부인들의 친교 행차가 기록되어 있다. 충주 체류기에 월탄에 거주하는 홍판사 생일초대를 받았다. 홍판사는 남편 조씨의 충주 체류기에 물적·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다. 홍판사는 남편 조씨의 서울 귀환시에도 배가 정박해 있는 월탄 포구까지 나와 술을 대접하고, 높은 곳에 올라 배가 멀리 떠나가도록 지켜보는 등 곡진한 정성을 쏟은 사람이다.

“월탄서 교군 보내여겨서 가니 니참봉딕 도디평딕 니진스딕 니성원딕 박성원딕 모다 겨시다 대되 몸즈와 잔뱃조이 흐시니 홍판스 생일이시더라 난리 후 더리 일가 모다 다내시니 그지업서 뵈더라 도디평 유무 드리시더라 게서 자고(1638년 2월 19일)”

홍판사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남편 조씨에게 직접 찾아와 초대의 말을 전달하였다(2월 13·14일). 홍판사는 생일에 남편 조씨에게 가마꾼까지 보냈는데, 모인 부인은 이참봉댁, 조지평댁, 이진사댁, 이생원댁, 박생원댁 등이고 홍판사에게 현작하고 하루를 묵으며 친분을 나눴다. 조지평은 부인을 통하여 남편 조씨에게 안부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남편 조씨는 너무도 극진한 대접을 받고 감격스러워하였다. 이외에 피난기나 귀환기 모두 많은 부인과 별실들이 남편 조씨를 방문한 기록은 일일이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부인이, 부인과 별실이, 별실과 별실이 함께 찾아와 위로하고 문안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였다.

남편 조씨가 어디를 가서 거주하거나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들끓었고, 조씨를 극진히 대접해주었다. 남편 조씨는 이 현상을 남편이 그들에게 곡진히 대접했던 탓이라 여겼으나,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이웅의 탄탄한 관직생활과 폭넓은 교제 이면에는 부인의 지칠 줄 모르는 손님접대와 인맥관리라 있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전통시대 사교의 공간이 주로 ‘집’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남이웅가의 집을 친교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서 소통하고 관계형성을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바로 부인 남편 조씨이다. 남편 조씨의 따뜻한 인성과 포용력, 이것이 남이웅가가 전국규모의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4.5 노비

조선시대 양반은 노비의 사역을 통하여 경제적 존립 기반을 형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노비 계층의 존재 없는 양반계층의 존재는 불가능한 일이다. 수많은 노비의 상전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양반은 양질의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었다. 양반들은 그런 노비들의 존재를 관리하고 부리는 일에 소홀할 수가 없었다. 조선 전기 목재李文樅(1494-1567)의 『목재일기』에는 상전이 노비를 관리하는 방편으로 자주 체벌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체벌에 관련된 수백 건의 기록이 실려 있다. 이문건 가문의 체벌 정책은 동 시대 다른 사족들의 체벌정책과 비슷한 것이었다. 체벌 이유는 ‘상전이 부르는데 즉시 오지 않았다거나, ‘주인의 지시와 명령을 신속히,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부주의와 과실’, 심지어는 ‘더운 물을 속히 대령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회초리로 엉덩이를 맞거나 구타당하고 있는 것이다.⁹⁸⁾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노비들은 불완전한 자유를 찾아 도망을 꿈꾸었다. 특히 전쟁과 같은 국가 혼란기에는 도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고 싶은 집단심리가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남평 조씨 집안의 사례는 이문건 가의 사례와 매우 상이하다. 도망은커녕 각지에 흩어져 있는 외방노비들도 전쟁 중에 죽은 이 없이 무사히 살아남은 것을 ‘항것’ 곧 上典의 덕분으로 돌리며 감사해 하고 있다. 1637년(정축) 11월 10일 일기에 의하면, 남평 조씨의 술거노비 창원이 수공 차 부안에 갔다가 호남과 영남에 거주하는 종들을 방문하였다. 이 때 양남의 종들은 창원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상전 덕분에 다 살아남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남의 집 사람들(종)은 달아나거나 숨은 이가 많은데, 그 이유가 ‘상전이 종들을 심하게 다루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창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남평 조씨는 “외방 종이나마 상전이 모질게 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하였다.⁹⁹⁾ 모진 상전을 피하여 달아나거나 숨은 사례가

98) 심희기, 『16세기 이문건가의 노비에 대한 체벌의 실태분석』, 『국사관논총』 97, 2001. 155면.

99) 『병자일기』 1637년 11월 10일. “창원이 부안 수공도호며 가다 냥남 종들이 브린 종들을

많으나, 『병자일기』에는 단 하나 차례도 도망간 노비의 사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남평 조씨도 피난 여정에서 몸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벗지 않고 얼고 데지 아니하니 모두 종들이 아니었으면 어찌되었으리?”라고 말함으로써 종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술하였다.¹⁰⁰⁾ “종의 집에 몸을 의탁하여 마음이 편안하고, 어디를 가도 종이라는 것이 우연치가 않다”¹⁰¹⁾는 고백은 남평 조씨의 종을 대하는 철학이 묻어있다. 부리는 사람인 남평 조씨와 부림을 당하는 종의 관계가 주종관계를 너머 상호 의존적 관계임을 살필 수 있다. 노비는 남평 조씨 가문의 운명 공동체이면서 재산이기도 하다. 비록 재산권의 일부인 노비들이나마 그들의 수고로움과 존재의미를 깊이 성찰한 것이다.

한편 노비와 전답은 전국적 분포를 보인다. 평안도, 영남(김천), 호남(여산·부안) 충청도(노성·서산·보령·신창·당진·충주·청풍), 경기도(수원·광주·평택), 서울(동마는, 마포), 삼고지(뚝섬근처)밭, 삼개(마포), ㅁ전(麻田, 종로구 와룡동, 권농동, 봉익동 근처), 강원도(춘천) 등이다. 종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선탁, 대북, 덕성(비), 의봉, 양운, 괴춘, 버리춘이 (서울종), 눈술(니산, 현 공주 노성면), 후복, 이남(심양으로간종), 업동(평택), 한눌(신창), 막산, 막석, 막디(서산종), 늦쇠(보령), 세미, 굿쇠(청풍), 후명, 슈길, 귀싱, 구일, 은동3형제, 슈필 3형제 (여산종), 선탁, 대북, 녹해 등 8명(수원), 통일, 명옥, 망남(충주), 통이, 어산, 특이, 막난, 회비, 슈, 일봉, 향싱, 덕경이(김천), 春伊2, 介叱知, 乙介, 莫介, 日隱介, 日今, 香春伊(1633년 3월 19일 진무3등 공신으로 하사받은 비) 등이다. 이밖에 『병자일기』에 거론되지 않은 노비 등이 더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규모로 본다면 남평 조씨의

보고 다 마조나와 항거시¹⁾ 기별을 못고 구스히곰 나신이리 하늘궤다 우리 노비등도 향것님 덕분에의 흐나도 주그니 업시 다 사란노라호고 다 곰 즐겨흐더라호고 갓던 종들이 느미집 사람은 달화 주 보고 드러나리 만코 숨으리 만호더 저희 다 그러구로 고공이나 힘써혀주더라흐니 외방 종이나 항거시 모디리 아니히는 다시로다 흐노라”

100) 1638년 4월 24일. “덕남이 서울 가 녀러오니 무성이 썩 것 흐 필 마전흐니 몬져오고 청배집 헤아 어미 뵈 썩 것 가져오다 난리 나 갈제 몸의 브튼 것만 디너 나서 녀산 가 의쥬덕 면화로 쉬나히 여러 필 나코 기령 면화 가져다가 질삼들을 하니 그려도 벗디 아녀 얼고 데디 아니흐니 다 종 곳 아니면 엇디리”

101) 1638년 2월 2일. “종의 지뵈오니 편하다……아미더 가도 종이란거시 우연티 아니하다”

집안의 가게 운영은 가히 중소기업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규모의 토지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노비와 전답을 일사분란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점은, 남평 조씨의 인권존중적 노비경영법이 그 비결이었다 할 수 있다.

5. 맺으며

이상 『병자일기』 3년 9개월의 기록을 통해 17세기 남평 조씨의 家政과 인간경영을 살펴 보았다. 남평 조씨는 단호하면서도¹⁰²⁾, 부드러운¹⁰³⁾ 성격을 겸비하였고,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내는 힘을 가졌다. 특히 병자호란이 발발한 직후 서해안 지역에서의 피난기는 물 한 모금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도 하였으나, 매일 매일의 생활상을 기록해 낸 기록정신은 매우 높게 평가받을 일이라 여겨진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병자일기』에는 병자호란이라는 국가 위란의 시기를 당하여 당대 최고위층 양반 부인의 피난 남하여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긴박했던 당대의 시대상황과 그러한 시대를 대처하며 삶을 영위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피난과 체류지로 선택한 호서지역의 생생한 지명어와 지역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지명은 오늘날에는 사라진 것이어서 당대 지명어를 재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남평 조씨의 家政은 ‘主體的 生産者’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는 전통시대 대부분의 여성의 삶이 가정 내 ‘消極的 內助者’로서 존재했을 것이라는 우리의 편견 너머에 있다. 남평 조씨의 祭祀設行은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의 의미를

102) 뒷날 피난처에서 종들을 시켜 서울 집에 가보게 하였는데 모든 가산을 잃어버린 정황을 보고 받고 “일가드라나 무슨 하고 녁감이 평안이 둔너나 오시물 듀야 원이며……” 라고 말하며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싱각도업다”고 일축하기도 하였다(1637년 4월 6일).

103) 1640년 윤 1월 10일 “형조 좌귀하시니 비록 시비를 분간할 소임이나 미양 유죄인이나 동형하는 기별을 드르니 막음이 편티 아니코 숫그러하여 호노라니”

지닌다. 슬하의 1녀 4남과 두 며느리를 다 잃은 어머니의 애끓는 모정을 지녔고, 조상의 기일 및 생일다례를 철저히 설행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다. 남이웅가의 土地運營은 경제적 생활보장의 한 근거이다. 그런데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토지와 노비는 남편의 벼슬살이에 의해 형성된 물적 토대이지만, 그 물적 토대를 확대 재생산 해내어 가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낸 사람은 남편 조씨이다. 그리고 수시로 행해지는 膳物授受는 가정의 실질적 생활 물자를 조달 받고, 각종 인사에 환원시키기도 함으로써 남이웅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주는 행위였다. 전통시대의 선물수수는 상대에 대한 마음씀 이면서 ‘남’이 ‘우리’가 될 수 있는 의식을 형성해 주는 중요한 행위로 파악된다.

셋째, 남편 조씨는 인간경영자의 측면에서 따뜻한 감성을 지닌 휴머니즘의 소유자로 파악된다. 3년 9개월의 기록으로 만나는 남편 조씨의 나날은 婦德의 실현이었다. 그 부덕은 적어도 조선시대에 쓰인 수많은 여훈서류가 강조한 여성의 부덕보다, 한 차원 더 고양된 형태이다. 남편, 친자녀 및 서자, 며느리, 친족 및 빈객, 노비 등 남편 조씨의 삶과 맞물려 있는 타자들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이타적 사랑과 포용, 인권 존중의 따뜻한 마음을 지님으로써 열린 가족관계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이렇듯 남편 조씨의 타인에 대한 전폭적 배려와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환원되어 남편 조씨에게 돌아오기도 하였다.

『병자일기』 3년 9개월의 기록에서 만난 17세기 남편 조씨의 인격과 처세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는 바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 병자일기, 남편 조씨, 남이웅, 병자호란, 여성문학, 가정, 인간경영.

<참고문헌>

1. 자료

- 국립공주박물관, 『공주의 명가』, 2009.
 전형대·박경신 역주, 『역주 병자일기』, 예전사, 1991.
 남광우 편저, 『고어사전』, 교학사, 2009.

2. 논저

- 김경화, 『『병자일기』에 대한 여성문학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4.
 김선기, 『연재 송병선가 수증 선물단자에 대하여』, 『인문학연구』 75, 충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08.
 김성진, 『『瑣尾錄』을 통해 본 사족의 생활문화 -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4, 2007.
 김영진, 『『병자일기』의 기후와 농업』, 『조선시대 농업사연구』, 국학자료원, 2003.
 김영춘,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국어 연구』, 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김신연, 『〈병자일기〉에 나타난 조선조 노부인의 생활상』, 『한양여전 논문집』 20, 1997.
 문희순, 『충청의 여성문학유산 답사』, 이화출판사, 2009.
 민 찬, 『문헌자료 주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 『인문과학논문집』 44·45, 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2008.
 박경신, 『〈병자일기〉의 수필적 성격』, 『울산어문논집』 7, 1991.
 _____, 『『병자일기』에 나타난 1630년대 후반의 민속』, 『울산어문논집』 9, 울산대 국문과 1994.
 박성순, 『병자호란 관련 서사문학에 나타난 전쟁과 그 의미』, 동국대 석사논문, 1996.
 변순희, 『일기체 문학 〈병자일기〉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심희기, 『16세기李文樾家の 노비에 대한 체벌의 실태분석』, 『국사관논총』 97,

2001.

이성임, 『16세기李文樞家の 수입과 경제생활』, 『국사관논총』 97, 2001.

_____, 『16세기 양반사회의 膳物經濟』, 『한국사연구』 130, 2005.

이순구, 『조선후기 양반가 여성의 일상생활 일례 I -『丙子日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1998.

장경남, 『병자호란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여성 수난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1권 3호, 2003.

정하영,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65, 1996.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00.

_____, 『의식주 -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 조선시대생활사3 역사비평사,

2006.

함정옥, 『남평조씨 <병자일기>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6.

[Abstract]

The Housekeeping and Management Style of Nampyeong Cho During the 3 years 9 months

- Centered on 『Byeongjailgi』

Mun Heesoon

Nampyeong Cho, the wife of Nam I Woong(1575-1648), wrote 『Byeongjailgi』 while seeking refuge during Byeongjahoran, the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in December 1636(Byeongja) until returning to her original house in Seoul in 1640(Gyeongjin), three years and eight months later. She was from the gentry class and had a comparatively stable married life, this book calmly recorded her thoughts on daily life and the issue of life and death when faced with war, separation from her husband and the death of her children.

Firstly, 『Byeongjailgi』 graphically records the situation at a time when the destiny of the nation was at severe risk and the thoughts of a wife from the highest class as she journeyed to refuge. This book vividly reflects the impending situation and the life of people who had to cope with such hard times. We can confirm the locality and place names in the Hoseo area, which was selected as a shelter. This book also helps to research some of those names which cannot now be found.

Secondly, her housekeeping style is unique as a 'subjective producer.' This goes against our prejudice that the life of most women living at that time would have existed only as a passive, supportive wife. The character and performance of ancestor worship by Nampyeong Cho includes the philosophical introspection on life and death. She maintained a maternal love for her one

dead daughter, four sons and two daughters-in-law and kept perfect records of every anniversary of her ancestors' death and birth date ceremonies. The land run by the family of Nam I Woong was one of the basic foundations for stable living. But in fact, she contributed greatly to the expansion of existing land and servants which were accumulated by her husband and used those resources in her housekeeping. Frequent giving and taking of gifts helped to consolidate a network for the Nam I Woong family and through this Nampyeong Cho also could sustain her household. It is understood that such giving and taking of gifts at that time functioned as a show of respect and helped to form a kind of community spirit.

Thirdly, it is known that Nampyeong Cho was a merciful humanist in terms of her relationships and management of others. The book presents a glimpse of her female virtues on each day, and it is felt that her sense of virtue was higher than many of the moral guide books for women of the Chosun Dynasty. In form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such as her husband, her children, children of concubines, daughters-in-law, relatives, honored guests and servants, she showed altruistic love, tolerance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is led to open family relations. Her wholehearted consideration and love was reciprocated by others. Her character and way of life surely gives us an instructive example.

【Key words】 : 『Byeongja ilgi』, Nampyeong Cho, Nam I Woong, Byeongjahoran, Housekeeping, Management Style.

문희순

배재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연자1길 14

배재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moondaal@hanmail.net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2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